백두산

8.15 특집

8.15민족통일대회진행과 관련한 ≪한민전≫ 대변인 논평

조국광복 57돌을 맞으며 서울에서는 8.15민족통일대회가 진행되게 된다.

50여년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각계 통일애국인사들이 서울에 모여 거행하게 될 이번 통일대회는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대회이다.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8.15서울민족통일대회가 마련된 것은 전적으로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지난 90년대 초부터 해마다 진행되어온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들은 지금까지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서울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못하고 조국통일의 성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것이 전통화되다시피 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친미수구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반북도발행위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에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 오시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일념으로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주동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15민족통일대회가 서울에서 진행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당시 남북쌍방이 올해 8.15민족통일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약속이 훌륭히 이행되게 되었다.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과 각계 애국민중은 뜨거운 동포사랑과 선견지명의 탁월한 지략으로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물리치시고 8.15서울민족통일대회를 열도록 해주심으로써 민족통일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큰 절을 드리고 있다.

지금 이 땅의 각계민중은 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커다란 기쁨과 환희 속에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이북의 통일사절들이 하루빨리 서울에 내려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환영준비와 통일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서울민족통일대회가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이번 통일대회는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차단하고 6.15공동선언을 깨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고야 말려는 온 겨레의 불굴의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할 것이며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우리 민중의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떠밀어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이번 민족통일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잘 알고 서울에 오는 북녘의 통일사절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끓어오르는 통일열기를 활화산으로 분출시켜 이번 서울대회를 명실공히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을 추진시키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행사로 원만히 치르기 위해 성과 열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이것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높이 치켜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구호이다.

이 땅의 각계민중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를 통일문제해결의 생명선으로 거머쥐고 6.15공동선언관철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급에서 민족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며 그 누구를 막론하고 6.15공동선언이행투쟁에 동참해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제와 이회창친미반통일세력의 반통일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제때에 철저히 분쇄해버려야 한다.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민족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한민전≫과 민중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주체91(2002)년 8월12일 서 울

광복의 8.15를 통일의 8.15로

오늘 우리는 겨레의 통일열망이 뜨겁게 끓어번지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열풍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쉰일곱번째로 광복의 날을 맞게 된다.

돌이켜 보면 8.15조국광복은 저절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누가 가져다준 것도 아니였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소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

한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되고 지켜지는 것이다.

8.15조국광복은 분명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결실이였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피로써 쟁취한 자주독립의 날이라는 여기에 8.15의 참의미가 있는 것이다.

광복 57주년을 맞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력독립의 민족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여 민족재생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만고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과 은공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일찌기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종주국의 무산혁명에 부수하는 종속적인 것으로 보던 기성의 관념과 이론에서 벗어나 식민지민중이 자체의 힘으로 자주독립을 이루는 진로를 명시하셨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무장항일로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광복하셨다. 주석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는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철저히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조직영도하시어 마침내 민족주체적 역량에 의한 최후승리를 이루어 내셨던 것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8.15조국광복이 위대한 주석님의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결산이였음을 웅변하고 있다.

그러기에 8.15를 맞을 때마다 우리 민중의 가슴가슴은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짓밟힌 겨레의 운명을 건져주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 열렬한 경모심으로 끓어번지고 있으며 주석님의 유지를 받들어 광복의 8.15를 통일의 8.15로 만들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8.15는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 민족이 그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의미에서 광복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광복의 기쁨은 순간이였을 뿐이다. 미군이 광복의 환희를 탱크와 군화발로 짓뭉개며 이 땅을 비법강점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점은 그대로 국토양단과 민족분단으로 이어졌고 이 땅은 미국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오늘 ≪한국≫이 현대판 ≪만주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국호≫는 있어도 자주권이 없고 ≪대통령≫은 있어도 실권이 없고 ≪국군≫은 있어도 통수권이 없으며 경제는 있어도 제것이 없고 문화는 있어도 민족의 얼이 없는 것이 식민지≪한국≫의 현실이다.

역사와 현실은 우리 민중을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성스런 투쟁에로 부르고 있으며 그것은 곧 반미자주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제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반미자주통일, 여기에 우리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절절한 염원, 강열한 지향이 모두 함축되어 있으며 그 실현에 분단의 비극을 통일의 기쁨으로, 예속의 비운을 자주의 환희로 바꾸는 길이 있다.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사회적 변혁에 대한 요구도 통일의 소망도 실현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시대를 맞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누구때문에 다시 긴장국면에로 되돌아서고 갈수록 경색되어 가는가.

부시미행정부의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 구체적으로는 대북강경정책때문이다.

더욱이 부시의 ≪악의 축≫폭언후 전쟁접경으로만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현정세는 우리에게 미제의 핵참화로 인한 민족공멸의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반미자주통일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민족번영의 길이라는 것은 역사의 증언이며 현실의 웅변이다.

오늘 민족통일위업수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자주통일선언이며 새 세기 통일의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8.15를 통일의 8.15로 만들 때 우리는 이 날을 진정한 자주독립의 날로 기쁘게 기념하고 경축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요구한다.

우리는 자주가 곧 생존이요, 생존과 발전의 절대조건도 곧 자주라는 대중적 각성을 더욱 높여 범국민적 반미투쟁으로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부시, 고이즈미 그리고 이 땅의 친미친일사대매국노들이 ≪한미일공조≫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민족공조로 이를 철저히 분쇄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8.15에 즈음하여 우리가 특별히 가슴깊이 새기게 되는 것은 주석님을 떠난 8.15조국광복을 생각할 수 없듯이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떠나서 통일위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대한 주석님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하여 21세기 통일의 이정표를 세워주신 분도 선군영도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분도 **김정일**장군님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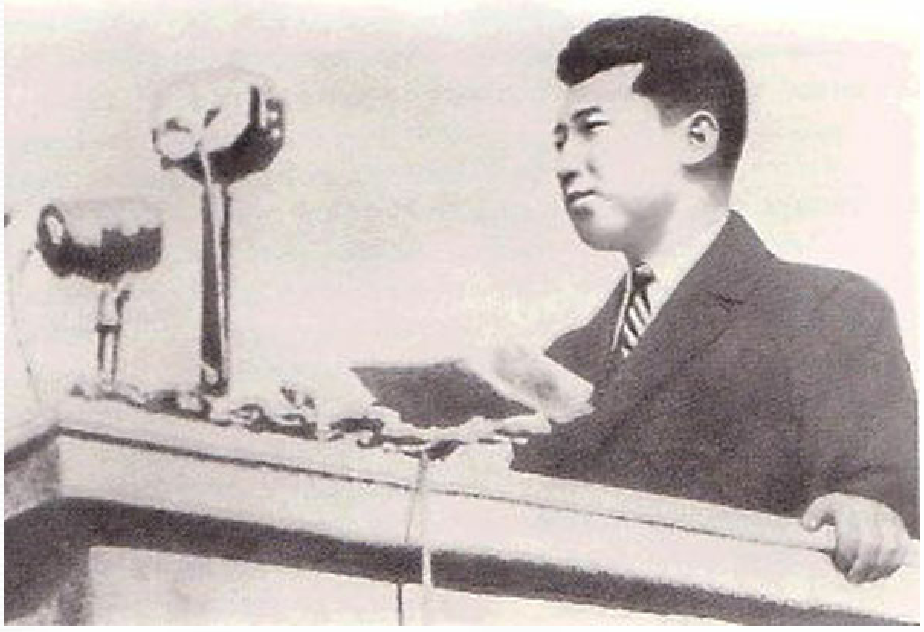
오늘 남녘의 민심은 민족운명의 구세주이신 장군님께로 쏠리고 있다.

통일로 향한 이 민심의 대하, 그것은 막을 수도, 억류시킬 수도 없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7천만 민중이 모두 통일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며 장군님 밝혀주신 통일의 지름길따라 통일대장정에 나섰기에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구국전선 주체91, 8월 11일

광복의 은인



8.15광복 57주년을 맞는 각계 애국민중들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신 광복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돌아보면 100여년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했다.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이권쟁탈을 위한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었던 한반도, 우리 민족은 망국망민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쳐야만 했다.

5천년의 역사국에 비낀 이 오욕의 망국상을 안고 얼마나 많은 우국지사들이 도쿄와 상하이, 미주와 유럽을 방황하며 몸부림쳤던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사슬에 2중, 3중으로 결박당한 한반도는 그대로 피바다에 잠겨있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우리 말과 글 심지어 성과 이름을 쓰는 것도 금지당했다.

이 땅의 수많은 자원과 재물이 일제에게 약탈당했고 600만이 넘는 청장년들이 섬오랑캐의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에 끌려가고 근 20만명의 여성들이 종군위안부로 잡혀가 짐승보다 못한 학대와 모욕을 당했다.

그렇지만 어디에 하소할 곳도 없고 누구하나 동정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열강들은 약자를 조롱하고 일제와 맞장구를 치며 저들도 한몫보려고 팔을 걷고 달려들었다.

말그대로 우리 민족의 존엄은 강도일제의 군화발에 여지없이 짓밟히었다.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 암담하던 시기에 과연 누가 민족을 구원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던 민족의 존엄을 찾아주었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일찍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새 민족사를 열기 위한 항일성전을 선포하신 **김일성**장군.

그분께서 울리신 항일의 총성은 민족재생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포성이였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준엄한 파멸 선고장이었다.

장군님께서는 15성상 항일무장대오를 이끄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신출귀몰의 지략으로 일제백만대군을 삼대베듯 쓸어버리셨다.

백의동포는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용기백배 항일성전에 나섰다.

그리하여 무적을 자랑하던 일제백만대군은 지리멸렬됐으며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이 강산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삼천리에 차넘친 감격과 환희, 이것은 조국광복의 은인에 대한 감사의 외침이었고 민족재생의 새 시대 개막에 대한 기쁨의 탄성이었다.

우리 민족을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해주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공적을 어찌 세월이 간들 잊을 수 있으랴.

김일성주석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질곡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었으며 오늘 지구촌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자주민족의 자긍심에 대해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인류정치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규군의 지원도 후방도 없이 수적, 기술적으로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백만대적과 싸워 이기신 전설적 영웅, 위대한 영장은 알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광복후 새조국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시어 이북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막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우시었다. 그래서 세인들로부터 ≪인류의 이상향≫, ≪사회주의본보기≫라고 칭송받는 주체조선으로 그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하시었다.

정녕 **김일성**주석님은 존망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광복의 은인이시고 이북땅위에 세인의 선망을 받는 불패의 강국, 민중의 낙원을 건립하시어 우리 민족을 행성에서 가장 존엄높은 민족으로 되게 하여 주신 민족의 은인, 절세의 위인이시다.

장수일 - 구국전선 주체91, 8월 11일

광복년의 민심

감회도 새로운 57년전 8월15일 정오, 일제는 우리 민족 앞에 무조건 항복을 고하였다.

≪동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본제국주의의 수치스러운 패망을 만천하에 알리는 순간이었다.

이 시각 삼천리강토는 광복의 환희로 불도가니마냥 뜨겁게 달아 올랐다. 도처에서 격앙된 민심이 활화산처럼 터져올랐다.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하던 역사의 날이었던가.

지긋지긋하던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의 쇠사슬을 끊어던지고 자주의 광명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 순간 온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 광복의 은인 **김일성**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만세의 환호성이 누리를 진감하고 사처에서 각계각층 군중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광경이 어디서나 펼쳐졌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극로선생도 동지들과 함께 감옥문을 부수고 나와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오열을 터쳤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얻은 지병으로 병고에 시달리던 허헌선생도 이날만은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 나와 수많은 군중들과 광복의 기쁨을 나누었다.

종로구 계동자택에서 연금중이던 여운형선생도 거리로 달려나와 장군님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지었다.

당시 서울장안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3만군사를 선발대로 거느리고 서북조선에 들어 오셨다≫, ≪장군님께서 서울로 나오고 계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펴졌다.

이 소문을 듣고 개성과 연안, 인천과 광주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 들었다.

8월16일 서울역광장은 **김일성**장군님의 서울입성소식을 접한 각계층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용산철도공장 노동자들이 **김일성**장군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북을 치며 광장에 들어오고 중학생들과 주변농민들이 나팔을 불고 농악을 울리며 모여 들었다.

당시 보성전문학교 학생이던 김동진은 그날의 감격을 회억하며 이렇게 말했다.

≪굉장했어요. 온 삼천리가 다 역광장에 모였나 싶었어요. 특히 서울역 앞에 세웠던 솔대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백두산에서 20성상 파란곡절을 다 겪으시며 항일대전을 벌이신 장군님을 어떻게 준비없이 그냥 모실 수 있으랴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세워진 것인데 나도 북악산에서 소담한 솔가지를 꺾어 솔대문에 꽂았습니다. 그때 일이 어제일인듯 싶어요.≫

서울의 각계인사들은 ≪**김일성**장군 지지동맹≫을 결성하였고 허헌, 홍명희, 여운형선생의 발기로 서울의 23개 정당, 단체대표들이 모여 ≪**김일성**장군입경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어찌 서울 뿐이랴.

부산과 통영, 광주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각계민중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경모심으로 가슴불태우며 그분이 오실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일제의 강요에 못이겨 징용, 징병, 정신대로 타향만리에 끌려갔던 수많은 남녀 청장년들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그리며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관부연락선을 타고 귀국한 주경하씨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관부연락선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귀국했는데요

나도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조국으로 돌아오는 사흘간 주먹밥하나 지급되지 않아 고생이 말이 아니었죠. 생쌀을 씹거나 빈 속으로 항행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배고픈 생각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쓰시는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밤가는 줄 모르던 그때 일을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이 나날 이 땅의 가가호호마다에서도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로 흥성이고 있었다.

벽초 홍명희선생의 집도 예년에 없이 흥성이고 있었다.

항일유공자 한영애씨로부터 전설적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사람들은 밤가는 줄 모르고 장군님 세우시게 될 민중의 새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풀어 있었다.

그날의 격동된 민심을 다시금 떠올리며 이 땅의 민중들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 만리를 헤치시어 안아오신 광복의 8.15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의 8.15로 장식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진다.

문성용 - 구국전선 주체91, 8월 11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평생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싸우신, 일찌이 역사가 알지 못하는 절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이였으며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광명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평생이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위에 놓여있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장장 20성상의 항일혁명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만고절세의 위인이시고 전설적 영웅이실 뿐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주석님의 한평생은 항일대전시기를 내놓으면 사실상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온 민족이 복락하도록 하시기 위한 조국통일투쟁에 바쳐진 한평생이였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겪고 있는 겨레의 비운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늘 자신께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것은 결코 나라의 절반땅만을 광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자신께서 온 겨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시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을 벌이시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준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집필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발표하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침과 방안, 각종 제안들은 수백건이나 된다.

주석님께서는 참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할 업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밝혀주심으로써 조국통일투쟁에서 확고히 거머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과 조국통일투쟁의 최종목표로 되는 통일국가의 면모와 성격, 운영원칙과 시정방침, 조국통일투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민족주체적 역량편성의 원칙과 방도를 제시해주신 것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겨레가 들고 나가야 할 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었을 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노고를 다 바치시었다.

오늘도 판문점 북측지역에는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조국통일관계문서를 보아주시고 친필로 비준하여 주신 활달한 필적을 새긴 친필비가 온 겨레의 끝없는 감동과 경모의 마음에 받들리어 숭엄하게 서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문서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기 위해 세워진 통일친필비, 여기에는 비록 아홉글자밖에 새겨져 있지 않지만 수천수만자의 비문에 비할 수 없는 위대하고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고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치신 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특히는 외세에게 짓밟혀 유린당하고 고통받는 우리 남녘겨레에 대한 뜨거운 어버이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이남땅에 홍수가 나도 가물이 들어도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시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였으며 이남땅에 사는 동포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따뜻한 동포애적 원호를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늘 밤이 되면 남녘겨레들의 생각이 더 난다고, 분열된 조국의 역사가 하루하루 깊어가는 것이 가슴아프다고 말씀하시었다. 통일만 되면 자신께서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고 말씀해오시던 위대한 주석님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근 반세기간에 걸치는 불면불휴의 노고와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온 겨레의 가슴 속에 영원불멸할 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장엄한 거족적 투쟁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영도,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애국애족의 숭고한 이념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위대한 영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는 반드시 분단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날을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박남순 - 구국전선
주체91, 8월 11일

일제를 타승하신 20대의 청년장군

8월 15일은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광복된 날이다.

57년전 이날 조선인민은 일제의 100만 관동군을 격파하고 위대한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항일대전은 20대의 청년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조직전개하신 력사에 류례 없는 간고한 전쟁이였다.

14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대일 전쟁을 선포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전쟁기간 독창적인 유격전법과 전술로 도처에서 적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신출귀몰하는 주석의 일행천리전술과 망원전술, 유인전, 습격전, 매복전에 녹아 난 적들은 주석의 존함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다.

주석께서는 전 민족을 광복성전에 불러 일으키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석께서는 1936년 5월 5일 전민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다.

조선국내는 물론 해외의 넓은 지역에 뻗어 간 이 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전 인민적인 반일항전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켰다. 조선혁명의 정치군사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신 주석께서는 1945년 8월 9일 전체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광복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 항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8월 13일

김일성주석의 하나의 조선로선은 통일의 필승의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12일부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발표 5돐에 즈음하여 실은 론설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 주시였다.

그이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안아 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의 길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불멸의 통일대강으로 빛내여 주시였다.

온 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뜻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림으로써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 갈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 와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8월 12일

8.15와 오늘

8.15는 분명 우리 민족사에 조국광복의 8.15이자 민족재생의 8.15로 각인되어 있다.

삼천리강토를 진감한 그날의 만세소리가 귓전에 쟁쟁이 울리며 뜨거움에 젖게 한다.

저주로운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온 겨레가 복락할 자주와 민주의 새 세상, 새 정치, 새 생활을 갈구하며 들끓던 그때 일을 어제일인듯 떠올리며 회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얼마나 벅찬 광복년의 나날이었던가.

그 드높은 감격과 환희가 돌연 분단의 비극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를줄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에 기어든 미제가 우리 민중의 자주독립염원을 짓밟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강요한 그때부터 8.15는 우리 민중의 마음 속에 미완의 8.15, 자주통일을 절규하는 비탄의 8.15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도 그때의 통분함을 누를길 없고 오늘에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침략자 미제에 의해 이 땅 도처에 세워졌던 인민위원회들이 해체되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민중들이 그네들의 총칼아래 피흘리며 쓰러졌다.

미제는 애당초 우리 민중을 광복된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전패국의 국민처럼 치부하면서 이 땅에 군정을 실시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그러모아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했다.

저들의 신식민지지배체제확립과 대륙침략의 교두보확보를 위한데 그 흉심이 있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미제는 우리 민중에게서 언론과 출판,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등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했다. 이같은 근대적 강권통치, 철권통치에 항거하여 사회의 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절규하는 수많은 아들딸들의 가슴에 총칼과 대포를 들이대고 탱크로 깔아뭉갠 미국이다.

2.7구국투쟁, 4.3제주도민중봉기, 4.19민중항쟁, 5.18광주민중봉기 등 얼마나 수많은 의로운 투쟁들이 그네들의 파쇼폭압으로 진압되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총칼에 난도질당했던가.

이 땅의 말못하는 금수도 낯을 붉히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었다.

미제는 애당초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이고 흡혈귀의 집단이였다.

우리 민족을 ≪열등민족≫으로, ≪들쥐≫로 모독하면서 길가는 주민을 심심소일로 쏘아죽이고 산에서 풀뜯는 소녀를 개를 풀어 물어뜯게 하고 만삭이 된 임신부를 윤간한 식인종무리가 바로 미국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8.15광복후부터 1999년까지 이 땅에서 미제가 무고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각종 범죄건수는 무려 27만여건으로서 이로 하여 우리 민중이 입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감안할 수 없다.

최근에는 전동록주민을 무참히 살해한데 이어 14살난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깔아 죽임으로써 전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 천인공노할 만행 앞에 전민중이 분개하고 천백배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지배정책과 민족분단영구화책동으로 이 땅은 자주권부재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었다.

미제는 이같은 식민지체제를 이북에까지 확대해보려고 비열하게 획책하고 있다.

일찍이 6.25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대륙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북침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제 수중에 넣는 것도 모자라 해마다 수많은 전쟁장비들과 첨단무기들을 이 땅에 반입, 실전배비하고 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연일 북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과 북침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이다.

알려진 자료에 따르더라도 휴전이후 지난 99년까지 미제가 감행한 군사적 도발건수는 무려 15만여건, 이 기간에 벌어진 비교적 규모가 큰 전쟁연습건수는 1만여건, 여기에 동원된 군사인원수는 총 2천만명에 달한다니 경악할 지경이다. 미제의 이같은 북침전쟁책동은 6.15공동선언이 채택된후 더욱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북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고 최근에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이북을 핵선제타격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아프간전의 불길을 이북에 확대할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6월29일에는 이남호전계층을 사주하여 서해교전사건을 도발하고 남북관계를 극도의 경색국면에로 몰아넣었다.

참으로 가슴치며 통탄할 일이다.

지금 각계국민들 속에서는 우리 민중에게 불행과 재난, 고통만을 강요하다 못해 이제는 온 겨레의 머리위에 핵참화까지 몰아오려는 미제에 대한 증오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고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조국통일대업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광복 57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심정이다.

현상황은 우리 민중이 그 어느때보다 일치단합하여 반미자주화의 기치높이 미군철수투쟁에 총분기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군철수투쟁에 6.15공동선언이행의 첩경이 있고 조국통일대업실현의 관건이 있다.

전국민이 민족의 사활이 걸린 오늘의 반미자주화투쟁에 과감히 나설 때 미완의 8.15를 통일의 8.15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광주 이경철 - 구국전선
주체91, 8월 11일

기다려지는 8.15

해마다 찾아오는 8.15이지만 올해의 8.15는 예사롭지 않다.

지난 7월23일 평양에서는 오는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8.15민족통일대회를 서울에서 진행하자는 남북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역사적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합의서에 따라 이날에 남북겨레가 하나가 되어 민족의 통일의지를 굳히며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민족단합대회, 남북예술공연, 남북미술전과 남북사진전이 진행되게 된다.

이 얼마나 가슴울렁이게 하는 소식인가.

분단 5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분단비극으로 점철된 이 땅의 역사, 통일운동의 곡절많은 역사를 희망과 성공의 역사로 잇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나를 만난 전국연합의 김모씨도 ≪이제야 진짜 8.15가 오는가 봅니다≫라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랫동안 통일운동에 몸담아 온 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심정이다.

어떻게 마련된 8.15이며 어떻게 이어지는 통일의 8.15인가.

8.15광복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꼭 같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사랑으로 겨레를 안아 이끌고 총대로 폭풍을 물리치지 않았던들 과연 상상이나 할 일인가.

참말이지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군님께서 바치신 노고와 헌신을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리랴.

돌이켜 보면 지난 2년간은 민족의 운명, 통일의 전도를 판가름하는 준엄한 나날이었다.

미국은 북을 향해 ≪미사일위협≫,≪생화학무기위협≫을 떠들고 심지어 ≪테러지원국≫,≪악의 축≫으로까지 매도하면서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해 나섰다. 이남당국을 향해서는 ≪남북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쳐라≫고 압력을 넣으며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나섰다.

외세의 희생물이 되느냐,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준엄한 시각 장군님께서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도 모르셨다.

선군의 총대로 미국의 강경압살시도를 산산히 부셔냈고 자주정치로, 민족대단결로 미국의 통일방해책동을 눌러놓으시였다.

민족의 존엄을 건드리고 내정에 간섭의 마수를 뻗치려 하는 외세를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민족에겐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셨다.

그분은 민족의 정로를 밝혀주는 구세의 빛이셨고 민족구성원 모두를 품에 안아주는 사랑의 열이셨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온 겨레를 대단결의 장으로 불러주신 광폭정치의 화신이신 장군님 계시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뛰어들었다.

장군님의 무한대한 민족애, 도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통일의 길에서 빛나는 삶을 받아안았던가.

지금도 가슴 뭉클해진다.

이남의 대재벌 정주영을 안아주신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애에…

정주영명예회장이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나 다름없다고, 그의 공적이 역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의 말씀, 조의대표단을 무어주시고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까지 서울로 보내주신 민족분단사에 처음보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도량에 이끌려 언론사대표단, ≪한국미래연합≫창당준비위원장 박근혜, 유명가수 김연자를 비롯한 이남의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이 스스럼없이 그분을 찾아뵈웠다.

찾아뵈옵고는 민족문제해결의 고귀한 지침을 받아안았고 마음 속 생각도, 미흡한 의견도 터놓으며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었다. 민족단합의 길, 통일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분께서 열어주신 하늘땅, 바닷길로 이 땅의 각계각층이 평양으로 줄지어 찾아왔다.

이러한 나날에 그렇게 높게만 생각되던 원한의 휴전선장벽이 겨레의 마음에서 쾅쾅 소리내며 무너져내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 나날에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재확약한 4.5남북공동보도문, 제주도민방문단의 평양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와 접촉이 연속 이루어지게 되었고 분단역사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북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8.15민족통일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정녕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개최가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정치, 광폭정치의 위대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평이라 하겠다.

설움의 눈물대신 환희의 눈물로 얼싸안을 8.15민족통일대회.

그래서 나는 요즘 8.15를 더 손꼽아 기다린다.

태양이 빛나는 하늘아래서 남북민 모두가 ≪우리는 하나≫를 목청껏 부를 통일의 8.15를 말이다.

김남진 - 구국전선 주체91, 8월 11일

북의 통일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북의 통일사절들이 서울로 온다.

북측 민화협 대변인은 8.15서울민족통일대회에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망라하는 1백3명의 큰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분단 57년만에 처음으로 북의 통일사절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하는 성대한 8.15민족통일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참말로 민족통일운동사상 또 하나의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경사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8.15에 즈음한 민족통일공동행사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는 매해 평양에서 거행하는 것이 전통화되어 왔다.

일찍이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를 시발점으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모든 통일행사들에 남측의 통일애국인사들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다 참석하여 민족공동의 통일축제로 장식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6.15남북공동성명발표후 이남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의 통일애국인사들이 한꺼번에 평양으로 달려가 2001년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거행하여 민족통일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강산에서 연이어 개최된 남북노동자통일대회와 남북농민통일대회에는 남북의 노동자, 농민대표들이, 6.15공동선언지지민족통일대토론회에는 남북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주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와 남북여성통일대회에서도 남북의 젊은이들과 여성들은 우리의 조국도 하나, 민족도 하나,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마음도 하나임을 시위하고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함께 열어나갈 결의를 다지게 될 것이다.

4월남북연석회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평양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거행되어 온 사실은 평양이 곧 민족자주통일의 중심임을 웅변하고 있다.

남북 두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첫 만남도 평양에서 이루어졌고 분단장벽에 파열구를 내며 온 겨레의 가슴에 통일의 이정표로 아로새겨진 6.15공동선언도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통일의 성도 평양에서 탄생의 고고성을 터쳤다.

그 유서깊은 평양에서 뜨거운 혈육의 정안고 통일의 사절들이 서울로 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서울장안이 온통 기쁨의 파도로 설레이고 경향 각지에서 감격의 격랑이 일고 있다.

8.15서울민족통일대회는 남북의 민간급 통일운동단체들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사업에서 함께 이룩한 귀중한 성과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성사는 통일애국세력에게는 커다란 승리로, 반통일세력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회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거행되는 민족공동의 통일축제라는 점에서 뿐아니라 평양과 서울,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끝까지 관철할 전민족적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과시하는 역사적 계기로 된다는 점에서 통일운동사에서 자못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8.15서울민족통일대회는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시며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애국의 일념과 선견지명의 비범한 예지, 천변만화의 지략에 의해 성사되게 된 민족적 쾌거이다.

그분께서는 주동적인 대회재개제의로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대북강경, 반북대결책동으로 인해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단합과 통일의 관계로 되돌려세울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8.15서울민족통일대회의 성공을 위해 쌍방당국이 적극 지원하도록 조처하시고 대규모의 대표단을 보내주시는 아량을 보여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을 떠나서는 8.15민족통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이남의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장군님 보내주신 통일사절들을 맞이할 환영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북의 통일사절들을 피를 함께 나눈 혈육으로, 친형제로 따뜻히 맞이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들 모두를 꽃수레에 태울 것이다.

우리는 북의 통일사절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전기간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온갖 편의를 다 보장해 드릴 것이다.

북의 통일사절들이여, 어서 오시라.

구국전선 주체91, 8월 13일

분단사상 처음되는 8.15민족통일대회

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8.15민족통일대회가 곧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열기로 한 8.15민족통일대회는 분단사상 처음되는 민족통일행사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이번 8.15에 서울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대회가 명실공히 민족통일을 위한 대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8.15 광복절에 즈음한 민족공동행사는 지금까지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못했었다.

역사적인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것이 전통화되어 왔다. 일찍이 1948년에 있은 남북연석회의를 첫 시발로 하여 진행된 모든 통일행사에 남측 대표들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매번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1948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발기에 따라 소집된 4월남북연석회의에는 친미역적 이승만 직계정당, 단체들을 제외한 한국독립당, 민주독립당, 근로인민당, 인민공화당, 남조선노동당, 사회민주당, 신진당, 천도교청우당, 문화단체총연맹, 건국청년회, 민주여성동맹 등 1천여만명의 당원들과 맹원들을 대표한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당시 조성된 국난(≪5.10단선≫조작책동)을 타개하기 위한 구국대책들을 논의, 합의했던 것이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백만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임수경양이 참가했으며 그후 해마다 평양에서 진행된 범민족대회에 한총련대표와 남측 통일운동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했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에는 각당, 각파, 각계층의 대표들이 수백명이나 평양에 가서 8.15민족통일축전을 성대히 치르었으며 조선노동당 창건 55돌때에는 수십명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관단형식으로 평양에가서 당창건 경축행사를 보고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또한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민족통일대회, 남북농민통일대회,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가 성대히 치르어졌다. 올해 9월에는 금강산에서 또다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와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렇듯 통일의 성도인 평양에서 진행돼오던 민족통일행사가 분단 57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게 되고 또 북측에서 민간급대표들이 서울에 오게 된 것은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 남측 통일운동단체들의 거듭되는 요청과 그들이 지금까지 평양을 다녀온 답례로서 친히 보내시는 통일사절들의 방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8.15통일대축전때 쌍방이 합의한 약속이 훌륭히 이행되게 되었다.

8.15서울민족통일대회는 분단의 원흉인 외세와 남북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려는 반통일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제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행사들에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7대종단을 비롯한 각계층이 참가하는 것을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행위이니, ≪국보법≫위반이니 하면서 방북을 반대하고 시비중상해 왔다. 이번에도 8.15민족통일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남북민간급대표들이 금강산실무접촉에서 합의발표하자 그 무슨 서해사건에 대한 ≪책임자처벌≫,≪재발방지약속≫을 떠들면서 악랄하게 반대해 나섰다.

그러나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격언대로 8.15민족통일대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으니 미국과 이회창패당들은 세계면전에서 코를 떼우게 됐다.

또한 이번 8.15민족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다.

의심할바 없이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성대히 개최될 8.15 민족통일대회는 자주통일을 지향하여 싸우는 민족민주운동세력들을 크게 고무격려하며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각계층 애국민중과 통일세력들은 서울에 오는 통일의 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민족통일행사가 성공리에 치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 8.15민족통일행사의 서울개최를 못마땅히 여기며 이를 무산시키려고 광분하는 한나라당 패당들의 책동을 조금도 용서치 말고 걸음마다 분쇄하자.통일에 살기를 원하는 전국민과 통일운동세력들은 8.15민족통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어내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자.

구국전선 주체91, 8월 13일